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87회)

전능하신 여호와와 그의 위대함을 보이시고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사야 5장 16절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들의 몸을 입고 또 벗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3) 빛의 하나님께 욕을 받으며 욕을 씻어주고 환원하셨을까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을 막겠다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7년 옥살이를 하는 동안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오염된 피를 너무 토하니가 피를 토할 때마다 동반하는 고통의 눈물이 나오거나 오고 수없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피눈물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면회하러 간 이** 권사는 “왜, 주님 눈이 시뻘겋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면회 온 사람이 내가 피눈물을 흘렸다 는 것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라고 생각 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음란죄를 지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

한편 주님께서 옥중에 있을 때 구세주를 따르던 신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음란 죄를 짓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옥중에 계시더라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쁜 모든 사람들 속의 생명이 주님의 본 신체가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는 주님은 사람들이 무슨 짓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면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 “나한테서 음란세력이 온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여럿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잘못 떨어져 나간다고 “새출발을 하라. 그러지 마라.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만사스런 일이라고 그걸 피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

고 그렇게 타이르신 것입니다. 어느 경지에 오르게 되면 유리알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부 환하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은 100% 모든 척하고 마귀를 100% 속여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모조리 잘라버리면 하나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도 이제 그대로 죄를 지으면 다시 그 죄지은 것을 담당을 해가지고 씻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 왔지. 이 사람이 사람을 이제 벌주려 온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음란죄 짓지 말라고 지적을 해주었는데 면회하고 돌아가서는 또 음란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도소 안에 있는 간부를 통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당신한테서 음란세력이 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죄를 짓지 마세요!” 해서 음란죄를 계속 짓는 것을 교정시켜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음란세력이 한동안 안 오더니 나중에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적하였습니다. 음란세력은 온다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생활,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것을 전부 알고 있지만 다만 모르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죄만 안 지으면 용서해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아는 척을 하고 지적할 때는 그때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몰라도 음란죄를 지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란죄 지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수개월이 걸린 적도 있었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런데 수개월씩 걸려가면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기회가 없어지게 그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집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죄를 지어도 주님이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아는 척하면요, 구원받을



고베 대지진(일본 한신대지진)으로부터 보호받은 <승리제단> 성도들 출처: https://www.victor.or.kr/kor/sn_news/20031015/031015_sub9.htm

자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데는 이 사람이 선 수야. 이 사람만큼 모른 척하는 소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서 이 사람 하나예요. 모른 척하는 거!”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의 사생활을 밝힐 것이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눈이 가려져 삼위일체 하나님에 사람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거룩하고 성결한 구세주를 인간 죄인과 똑같은 것으로 예상하고 당신의 몸까지도 검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혜가 모자라서 죄인들의 불경스런 만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일까요?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의 사생활을 밝힐 것이다. 이 사람이 영육 간에 고자라는 것을(1900.9.15 말씀 중에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 심판날에 그의 거룩함을 입증하실 것이다라는 이사야 5장 16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7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하신 그 당일에 단상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바로 중심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교도소 생활 오래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중심이 되어버렸어. 중성자로서 완성이 되었어. 인간이 아

니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 몸으로 변해서 왔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불원간에 인간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중성의 빛으로 환원하여 죄인이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원시반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988년 3월 25일경 고베에 사는 후지다상이 옥중 면회를 왔을 때, 주님께서는 “3월 25일 날을 기해서 이제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안 가라앉게 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1980년도에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옥중에 있을 때 후지다상이 “일본 땅이 자주 바닷속으로 점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한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후지다상은 1965년 1월에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집들이 거의 다 부서졌을 때, “고베 제단 건물은 금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베 제단 식구의 집들도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같이 하나 보다!’ 하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슬 성신이 찍혀 나왔습니다.” 하고 옥중에 계신 주님께 그 사진을 전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일본 나라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면 1억이 넘는 일본 인구 중에 절반 정도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수장되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단지파 민

족들이 죽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당시의 민족인 일본 사람들이 죽는 것을 알면서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는 후지다상은 일본 수상을 했던 대니가 수상을 전 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니가 전(前)수상은 일본 시민의 한 사람인 후지다가 그런 전도를 하니가 이거 뭐 조금 정신이 이상이 된 게 아닌가? 하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후지다상은 일본 땅이 가라앉는 것도 봤고 일본 땅이 가라앉지 않고 스톱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전도한 것입니다.

구세주 구속 직후, 육해공 재난 사고가 연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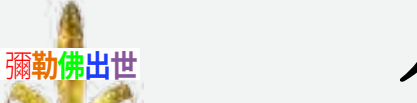
자비로운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려지는 오해를 살까봐 서두에서 선포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1994년 1월 초에 구세주가 구속되자 그 이후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재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서해안 쪽에서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기차가 충돌하고 거기가 다 저 끝이라는 섬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옥중에 가두니 하나님이 노여워서 재난이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참부모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고 해서 참부모가 되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거나 죽게 하지는 재난이 일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잡아당기고 있으며 또한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반면에, 마귀 또한 인간의 생명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마귀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생명줄을 놓아 버리게 되고 마침내 마귀에게 잡아당겨져 끌려간 인간은 점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이를 놓고 서로 자신의 자식이라

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이 아이의 엄마라면 이 아이를 잡아당겨라.”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아이가 찢어져 죽을까봐 끌어당기던 손을 놓았던 일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정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1994년 1월 초에 구속된 구세주는 3년 옥고를 치르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구세주를 한번 옥중에 집어 넣은 것을 만만하게 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구세주를 감옥에 계속 가둬놓고자 한 것이 징역 4년을 추가로 살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옥중생활 3년 만에 고등법원 최후진술에서 “나를 지금 내보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1년 안에 망합니다. 1981년 승리제단을 설립한 이후 이 사람은 성도들에게 다섯 가지 약속을 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이 땅에 계속 풍년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장미를 막고 태풍을 비껴가게 함으로 17년간 풍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전쟁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금년에 이 땅에 풍년을 줄 것입니다. 풍년은 결코 농사기술이 발달하거나 비료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비와 태풍을 조절함으로 이 땅에 17년간 풍년이 들었던 것입니다.(중략)”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주님의 4년형이 추가되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경고하신 진술대로 이듬해 97년 말에 국가부도라는 IMF가 왔던 것입니다. 한국에 IMF가 왔는데도 백성들이 굶지도 않고 다시 잘 사는 나라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세주께서 계속해서 풍년토록 하신 까닭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옛날에 바울 선생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육중 문을 열고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아주 얇은 단계에 있는 영의 수준 가지고도 감옥에서 나오는 능력을 행하였는데, 마지막 때에 구세주의 능력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백한수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13>

(지난호에 이어서)
 주역에서 금운을 가지고 불도를 이룬 이를 완성의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금운(金運)은 바로 목운(木運) 뒤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운이 영모(靈母)인 신박태선 장로님이었다면 금운은 바로 완성의 부처님을 말한다. 앞장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륵부처님이 석존 사후 3007년에 한국에 오신다면, 미륵부처님의 출현 연대 역시 시기로 환산하여 알려드린 것과 같이 1980년이 됩니다.

그럼 경전에서는 장차 오실 미륵부처님의 이름이 있을가요?
 미륵부처님을 증거하는 경전은 역시 미륵경이 좋겠고 그 가운데에서도 미륵이 오실 때를 말씀하신 미륵내시경(彌勒來時經)을 보도록 하지요.

[예] 불설미륵내시경(佛說彌勒來時經)
 彌勒道樹下坐 用四月八日明星出時得佛道
 미륵도수하좌 용사월팔일명성출시득불도
 미륵부처님이 도 닦는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에 밝은 별이 나타났을 때 불도

를 얻는다.
 해설 : 여기서도 미륵부처님이 밝은 별(明星)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고 의미 있게 알리고 있으며, 혹 어떤 분들은 밝은 별이 어찌 사람의 이름이냐고 하는데, 밝은 별이라고 한다면 금성과 화성을 말하는데 그런 햇빛을 받는다면 별이 얼마나 큼니까? 구세주인 미륵불이 별에 깔려 죽으니까 그런 뜻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이런 밝은 별이라는 뜻의 명성(明星)은 매일 밤 뜨고 지는 별이 아니기에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존이 말한 석존 사후 3007년에 미륵부처가 오신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밝은 별은 바로 매일 뜨고 지는 별들의 의미가 아니고 바로 “밝은 별”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은 찾았고 그럼 성씨가 궁급하지요? 어차피 사람의 몸을 타고 오신다면 성씨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미륵내시경에 曹씨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13>

석가모니는 왜 음력 4월 초파일에 죽는다고 했다가 스스로 번복했을까? -1

[예] 묘법연화경제1권 방편품(方便品)제2
 我始坐道場 觀樹亦經行 於三七日中
 아시좌도랑 관수역경행 어삼칠일중
 思唯如是事 我所得智慧 微妙最第一
 사유여사아 아소득지혜 미묘최제일
 衆生諸根鈍 著樂聲所盲 如斯之等類 云何而可度
 중생제근둔 착락소음맹 여사지류문 우하이기도
 내가 도랑에 처음 앉아 나무를 보고 삼칠일간(21일간) 지내면서 이런 일을 생각하니 내가 지혜를 얻은 것이 미묘하고 제일이나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둔하고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제도하라고 생각중...
 해설 : 근대 법화경 방편품을 보면 석가모니가 설산(雪山)에서 6년 고행후 기력

이 탈진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사람들의 도움으로 깨어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움직임 정도가 되자 석가모니는 스스로의 공부가 다 이루어져 불도를 이룬 줄 알고 불국토가 언제 이루어질까 등등으로 삼칠일(21일)을 보내며 미래를 선전에 들어 살펴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삼칠일을 선전에 들어 미래를 보던 중 석가모니는 불도를 이루지 못하고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미륵이라는 존재가 나타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석가모니 사후(死後) 3000년이 지난 뒤라는 것과 또 사람을 구원하는데 감로(甘露)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헛된 공부로 알고 스스로 죽을까봐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륵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성불하여 부처가 됐는가? 등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당시 대각(大覺)을 하고 보니 중생이 모두 근기가 무더서(根鈍)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08_Lotus_Lantern_Festival-Seoul-01_mirror.jpg

말씀을 하던, 당시 3000여 년 전의 인도에는 힌두교가 예나 지금이나 무척 교세가 컸고 힌두교의 근본 교리가 여러 신을 대하는 다신(多神)의 사상과, 사람이 죽어서 윤회를 한다는 윤회사상을 가르치므로 이러한 중생들이 설사 석존이 진리를 터득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일승(一乘)의 진리(眞理)인 부처를 이룰 수(成佛) 있는 법을 알려 주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으므로, 빨리 열반(죽음)에 드러려고 하다가 과거에 여러 부처를 생각하여 방편으로서 삼승의 소승법인 현세

대각(大覺)을 하고 보니 중생이 모두 근기가 무더서(根鈍)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첫 설법을 불경에 남긴 것이 증일아함경과 화엄경입니다. 이것은 설법 연대에서도 밝힌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증일아함경에 첫 경구에 “與第七佛 同一名號(여제칠불 동기일명호)”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3000년이 지난 현실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죽음을 이르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반경을 설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을 석가모니 제제 당시나 현재의 제자들이 스님들도 깨닫지 못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明鍾